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 활동 보도

2013년 03월 04일
(월요일)

강북신문 3면

‘안심귀가 마을버스’ 시행 눈앞

구본승의원 제안, 밤10시 이후 여성·노약자 안전위해 필요

앞으로 ‘안심귀가 마을버스’를 탄 승객은 밤 10시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하차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안심귀가 마을버스’ 시행은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난 1월 강북구청 담당부서장에게 시행을 위한 세부 검토를 제안한 것으로, 구본승 의원은 2월 27일, 강북구청 담당부서에 검토 결과를 확인한 바 ‘시행하기로 내부 검토되었으며 3월 초순경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밤 10시 이후부터는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하차할 수 있는 제도



구본승 의원

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내 12개 노선 78대에 승차한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들의 밤길 안전 귀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인근 성북구에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성북구의 주민, 직원이 선정한 ‘2012 10대 사업’을 투표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것으로 그 성과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구본승 구의원은 “밤 늦게 귀가하는 여성, 노약자, 장애인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시행되도록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사업시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포스트 4면

‘안심귀가 마을버스’ 시행 제안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1월, 타자치단체의 좋은 행정사례를 검색하다가 성북구의 ‘안심귀가 마을버스’ 사례를 확인하고 강북구청 담당부서장에게 시행을 위한 세부 검토를 제안하였다.

그 후 2월 27일, 강북구청 담당부서에 검토 결과를 확인한 바 ‘시행하기로 내부 검토되었으며 3월 초순경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구본승 구의원이 제안한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밤 10시 이후부터는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하차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되면 구내 12개 노선 78대에 승차한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들의 밤길 안전 귀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성북구의 주민, 직원이 선정한 ‘2012 10대 사업’ 투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구본승 구의원은 “밤 늦게 귀가하는 여성, 노약자, 장애인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시행되도록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사업시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강북구 '안심귀가 마을버스' 시행 눈앞!

구본승 의원, 밤 10시 이후,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의 안전위해 제안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1월, 타 자치단체의 좋은 행정사례를 검색하다가 성북구의 '안심귀가 마을버스' 사례를 확인하고 강북구청 담당부서장에게 시행을 위한 세부 검토를 제안하였다.

그 후 2월 27일, 강북구청 담당부서에 검토 결과를 확인한 바 '시행하기로 내부 검토되었으며 3월 초순경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들었다.

구본승 구의원이 제안한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밤 10시 이후부터는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하차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되면 구내 12개 노선 78대에 승차한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들의 밤길 안전 귀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본승 구의원은 "밤 늦게 귀가하는 여성, 노약자, 장애인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시행되도록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의정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며 사업시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한편 성북구의 「안심귀가 마을버스」의 전면 시행은, 지난 8월부터 2개 노선을 시범 운행한 결과 이용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각종 설문에서도 여성의 안전을 배려하는 좋은 제도로 조사되어 추진하게 된 것이

다.

특히 서비스의 주 이용자인 여성들로부터 여성상대 강력범죄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으로써 사회적 능력 발휘에 도움이 크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성북구의 주민, 직원이 선정한 '2012 10대 사업' 투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그 성과를 입증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강북구에서도 '안심귀가 마을버스' 시행되나

구본승 구의원 제안, 밤 10시 이후 여성 및 노약자 안전 위해

강북구에서도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사진)이 지난 1월, 타 자치단체의 좋은 행정사례를 검색하다가 성북구의 '안심귀가 마을버스' 사례를 확인하고 강북구청 담당부서장에게 시행을 위한 세부 검토를 제안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구의원은 지난 2월 27일 강북구청 담당부서에 검토 결과를 확인한 바 "시행하기로 내부 검토되었으며 3월 초순경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구본승 구의원이 제안한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밤 10시 이후부터는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하차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되면 구내 12개 노선 78대에 승차한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들의 밤길 안전 귀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성북구에서 주민, 직원이 선정한 '2012 10대 사업' 투표에서 안심귀가 마을

버스가 1위를 차지하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본승 구의원은 "밤 늦게 귀가하는 여성, 노약자, 장애인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시행되도록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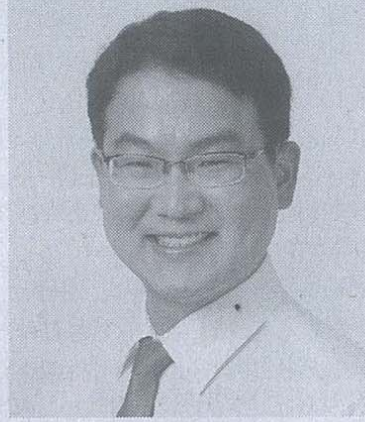


겠다"며 사업시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북구, '안심귀가 마을버스' 시행 눈앞!

구본승 강북구의원 제안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 안전 귀가 가능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1월, 타 자치단체의 좋은 행정사례를 검색하다가 성북구의 '안심귀가 마을버스' 사례(본지 2012년 10월31일 보도)를 확인하고 강북구청 담당부서장에게 시행을 위한 세부 검토를 제안, 곧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본승 의원이 제안한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밤 10시 이후부터는 정류장이 아니더



라도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하차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되면 구내 12개 노선 78대에 승차한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들의 밤길 안전 귀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성북구의 주민, 직원이 선정한 '2012 10대 사업' 투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구본승 구의원은 "밤 늦게 귀가하는 여성, 노약자, 장애인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시행되도록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사업시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